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5월 19일(주일) 제1246호

“당신의 나눔이 선교입니다”

오늘(19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정기후원 약정서 제출, 계좌이체, 홈페이지 참여

NGO 더멋진세상이 오늘(19일)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실시한다. 오늘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계좌이체로 후원행사에 동참하면 된다.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동참할 수도 있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서는 신규와 증액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약정서에 있는 매월 작정금액을 선택하고 자동이체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에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무통장입금(하나은행 573-910010-69205)을 이용해서 일시후원도 가능하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은 전 세계 21개국 27개 지역에서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국제 NGO 단체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난과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복음과 더불어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더멋진 마을조성사업,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사업, 모자

보건 및 위생사업, 난민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난민촌 학교 건축 및 지원,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긴급구호 등이 있다.

특히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은 NGO 더멋진세상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식수, 거주, 농업, 소득, 교육, 보건 등 전방위적 개발을 돕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세네갈 본나바 마을, 르완다 응호망가 마을, 네팔 고레다라 마을 등지에서 실시했다(관련기사 8-9면).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나눔이 지구촌 이웃들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선물하고 있다”면서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2-2271-2246

홈페이지: www.abetterworld.or.kr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 참가자 모집

6월 12~14일 오전 10시 서빙고 본당

2019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 참가자 모집이 한창이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서빙고와 양재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며, 당일등록은 없다. 회비는 일반 4만 원, 저녁 2만원이다.

6월 4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일반 2만 원, 저녁 1만 원 할인해 준다. 환불은 6월 4일까지만 가능하다.

2019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은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12일 ‘마음이 가난한 자는(마 5:3)’, 13일 ‘긍휼히 여기는 자는(마 5:7)’, 14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마 5:6)’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이재훈 담임목사, 이인호 목사(더 사랑의 교회), 이주연 목사(산마루 교회) 등이 강의한다.

12일 오후에는 김양욱 목사(등대교회), 13일 오후에는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I&S 대표)가 영역별 강의를 한다. 집회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직장인을 위한 마리아행전도 열린다.

12일(수)과 13일(목)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막 오른다. 김윤희 대표(FWIA)가 강의한다.

문의: 02-3214-3667/3201, 02-570-7277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복음 전하는 최고의 순간

내일 행복드림콘서트, 이번 주부터 순맞춤전도집회

손꼽아 기다리던 행복드림콘서트와 순맞춤전도집회가 드디어 이번 주 시작된다. 내일(20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60세 이상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행복드림콘서트’가 막 오른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영화배우 고은아 권사, 가수 노사연, 이무송 부부, 남성 4중창 CRUX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5월 29일(수) 오후 1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세례교육이 실시되고 세례식은 오후 2시 본당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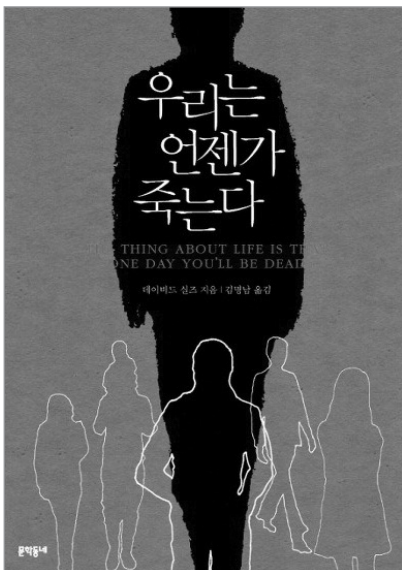
순맞춤전도집회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순에서 순맞춤전도집회를 실시한다. 순원들의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순예배에 초대하면 된다. 순맞춤전도집회 보고서는 6월 9일(주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15-3214



책 읽어주는 목사

필연적 수용에 대하여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데이비드 실즈 저 | 문학동네 | 13,000원

사람은 살아왔던 날들을 기억하는 ‘회상’과 남은 날을 헤아리는 ‘추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살아야 하는 것은 현재인데 죽어야 하는 일은 미래다. 그래서 ‘잘 살아야지?’ 하는 현재의 자기 독백 속에는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미래에 대한 자기 암시가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살아야 하고, 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차별적 목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죽음은 해학적 수용이 가능하며 즐거운 포기가 가능해진다. 더 의미 있는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적어도 나는 이 책을 보며 그런 것을 느꼈다. 바로 ‘데이빗 실즈’의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책이다.

저자는 자기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풀어내며 지루함을 없앴고, 의학적-사회적 통계를 사용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무엇보다 시원하고 솔직한 문체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해학적 목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평균적으로 기혼자가 독신자보다 오래 산다(충격적인 사실은 기혼 여성보다 기혼 남성이 받는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

독신을 선언하는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행복한 가정을 꿈꿀 때 오래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래 산다는데 해 볼만 하지 않는가?

“종교를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오래 산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정말 잘 한 일 같다. 오래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으니.

“키 큰 사람이(남자는 183센티미터 이상,

여자는 170센티미터 이상, 동양기준은 달라야하지 않을까?) 키 작은 사람보다 3년 더 산다.”

성도는 두 부류다. 키 작은 성도님, 키 큰 성도님! 나는 키가 큰 목사다. 목사인 나는 내 느낌을 말하기가 곤란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토박이보다 3년 더 산다. 일본인의 기대수명이 세상에서 가장 길고(82년), 잠비아가 가장 짧다(33년). 100세를 넘게 사는 사람들은 단정적이고, 의심이 많고, 실용적이다. ‘병을 이기는 것은 항상 재수 없는 인간들이다.’”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이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다. 오래 산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 책은 또 여러 위인들의 죽음에 대한 솔직한 대면을 소개하기도 한다.

뉴욕 센트럴 철도의 회장이었던 윌리엄 H. 밴더빌트는 1885년에 말했다.

“내가 느끼는 진정한 충만감과 기쁨은 재산이 50만 달러에 불과한 내 이웃사람의 것보다 결코 많지 않다.”

프로이센의 왕비 루이제는 말했다.

“나는 왕비이지만 내 팔을 움직일 힘조차 없다.”

에스파냐의 왕 펠리페 3세는 말했다. “통

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 왕국에서 살아온 세월을 자연 속에서 고독하게 살았다면 좋았을 것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얼마나 평온하게 죽었겠는가.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권좌 앞에 나아갔겠는가. 죽음 앞에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면 그 모든 영광과 재물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고 싶다. 지옥에서는 교황들과 왕들과 군주들과 함께 즐기겠지만 천국에는 거지들과 수사들과 사도들만 있을 테니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은 막연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현실인 것을 느꼈다. 거대한 삶에 관한 철학이 죽음 앞에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 죽음은 포기할 수 없는 필연적 수용인 것을, 그리고 그 필연적 수용이 오히려 가장 완전한 회복인 것을, 하나님 안에서 죽을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란다.



임용성 목사
(서산온누리)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답: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담긴 성경,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봄이 오면 따뜻한 봄바람이 분다. 얼어붙은 자연을 녹이는 봄바람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녹여준다. 아름답게 핀 벚꽃, 푸르게 돌아나는 새싹을 통해 자연 속에 살아 숨 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또 아침이면 여지없이 해가 떠오른다. 어둠 밤 깊어 가는 고민을 몰아내고, 지난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아픔을 몰아내고 새날이 밝아온다. 이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찾아오는 은혜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혹자는 말한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사랑

을 알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 속 이야기는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준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이 담겨있다. 사실 성경에는 인간의 죄악도 많이 나타난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죄악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신다. 그 사랑의 고백이 담긴 책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 때 두 달 동안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다. 그곳에서 현지인 학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제자양육을 했다. 총 8번에 걸친 만남이었는데 현지인 학생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려 했다. 어느 날 그 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언어 실력이 짧은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는데 통역을 해주던 현지인 사역자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는 학생의 대답에 그 사역자는 “성경도 한 번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것은 시계도 보지 않고 지금의 시간을 맞추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렇다.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믿음이 있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없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체험할 때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혹자는 또 말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알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은 알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 질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에 한 영혼을 위하여 왔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

해하지 못하는 너를 위해,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으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너를 위해, 잃어버린 양 같은 너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신다. 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눅 15:4).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윤석원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유명한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통해 인간 존재의 중심이 생각과 이성이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생각 중심의 존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카르트의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이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리얼 바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 충분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생명이요, 근원이요,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비전을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기도는 비전을 잉태한다. 그리고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며 나아가 할지는 오직 기도 속에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행동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방향을 잃어버린 행동이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합니다. 사람의 판단

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도전하게 합니다. 그것이 기도 속에 잉태된 비전이요,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의 능력과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기도를 가장 소중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생각 속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쓰임 받은 것 이면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 13장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느 13:31).

느헤미야서의 시작과 끝이 기도요, 느헤미야의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형통할 때나 장벽을 만나 어려울 때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 지식, 명예입니까? 느헤미야에게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행동이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다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곳에서 자라난 유대인 후예입니다.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통기마누스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술을 따라주는 직업을 천박한 직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은 언제든지 정적들에 의하여 암살 또는 독살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직책에 있는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고, 왕과 친밀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느헤미야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었던 귀한 인물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귀환이 시작되었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산 궁에 술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고국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수산 궁에 술 관원으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왕의 신임을 받아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위해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 받기 위하여 성실과 실력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일꾼으로 그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행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자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상들로부터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포로로 잡혀올 때 수치스러운 모습, 고달픈 포로생활 등 귀가 닳도록 조상들로부터 민족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연륜이 깊어지면서 자신의 사명과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하나님과 민족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희망적인 정체성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관심은 동족에 대한 집착과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싸웠던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 믿음의 가치가 느헤미야에게 심겨졌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가슴 찢어지는 통곡의 기도

“예루살렘아, 누가 네게 인정을 베풀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누가 네 안녕을 묻기 위해 발길을 멈추겠느냐?”(렘 15:5).

이 질문에 응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갔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초만 놓은 채 16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받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수치스러운 모습에 대한 형편을 들은 이후 느헤미야의 반응과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4절).

단어 하나하나에 느헤미야의 깨어진 마음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하고 목상하고 기도해오던 마음의 슬픔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터져 나온 것입니다. 내재되어 있던 깊은 슬픔의 샘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바울, 예수님이 이렇게 울었습니다. 통곡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존재합니다. 단지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단지 동정의 눈물만 흘린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정도 우리의 중보와 헌신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은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동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슬픔, 깨어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슬픔의 샘물이 느헤미야의 영혼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고백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6~7절).

진정한 회개에는 두 가지 고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며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조차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류하고 계십니까? 진노가 왜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언약의 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새 언약의 우산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13면에 계속)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2,407명 참석, 결신 81명, 긍정 반응 184명
(일본인 2,034명, 한국인 373명)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집회 참석자들이 활짝 웃고있다.

지난 15~16일 시즈오카 그랜십 대홀에서 막 오른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집회는 후지산처럼 웅장하면서도 갓 뜬 찻잎처럼 그윽함이 물씬 묻어나는 현상이었다.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집회의 포문은 리더십 포럼이 열었다. 15일 니혼다이라호텔에서 열린 리더십 포럼에는 한국과 시즈오카 지역 각계 리더십 159명이 참석해 교제하고 비전을 나눴다. 같은 날 저녁에는 그랜십 중홀에서 러

브소나타 전야제 ‘가스펠나이트’가 열렸다. 그레이스키즈콰이어, 시즈오카워크숍콰이어, 워십리더 나카야마 유타 등 시즈오카 현지 워십팀과 찬양팀이 집회분위기를 달궜다. 가스펠나이트에서 메시지를 전한 가와구치 류타로 형제(hi-ba 대표)는 “참가자들 모두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16일에는 그랜십 회의홀에서 교회 세미나가 진행됐다. 박종길 목사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기복 교수 ‘가정사역과 자녀양육’, 오오카와 목사(야마토갈보리채플) ‘1000명 예배와 400명 기도회의 걸과 속’을 주제로 강의했다.

대미는 그랜십 대홀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집회가 장식했다. 샌드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문을 연 러브소나타 집회는 플루트 연주자 송

솔나무,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집사, 발레리나 고세원,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배재철,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코가가 게스트로 출연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선포했다. 이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진정한 친구”라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집회 참석자 81명이 결신했고, 184명이 교회에 긍정적인 관심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이케다 아야미 씨는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다가와주는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가슴 깊이 다가왔다”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김부희 성도(야마나시교후교회)는 “믿는자와 미신자가 함께 감동하고, 행복을 느낀 훌륭한 집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국인 참가자 이소친 씨는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다시 러브소나타에 참가하고 싶다”고 했다.

최득린 장로(장로사관학교)는 “시즈오카 땅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땅으로 변하고,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는 집회였다”고 간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시즈오카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사람

일본인보다 일본을 더 사랑하는 ‘켄트 목사’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켄트 목사, 카오리 사모, 안드레카드 주인공 코마츠 나루미 성도, 아들 요나단.

일본인보다 일본을 더 사랑하는 외국인을 만났다. 에디호스 켄트 목사(가스펠하우스시즈오카교회)다. 에디호스 켄트 목사는 일본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이 일본 선교사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일본에서 다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신학은 스웨덴에서 공부했다.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시즈오카에서 개척목회를 하고 있다. 벌써 16년이나 됐다. 2대째 일

본 선교사이기도 하다.

에디호스 켄트 목사는 일본과 일본인을 너무 사랑한다. 그가 일본 선교사가 된 이유도 순전히 이 때문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매일 울었어요. 일본이 너무 그리고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제 부모님과 누나, 여동생도 일본을 사랑하지만 아마 제가 일본을 가장 많이 사랑할 걸요? 저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일본인을 만나면 꼭 말을 걸어요. 너무 반가워서요.”

일본을 너무 사랑한다지만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일본에서 목회를 한다는 건 큰 각오와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시즈오카에 오기 전에는 ‘시즈오카는 목사의 무덤’이라는 말도 들었고요. 그만큼 시즈오카가 선교나 목회 상황이 열악한 곳입니다. 저는 시즈오카가 영적으로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일본이 영적으로 경직되어 있긴 해도 선교나 목회하기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지역 상황에 맞는 전도 방법을 찾으면 일본 선교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디호스 켄트 목사는 러브소나타 시즈오카를 준비하면서 ‘안드레카드’의 위력을 실감했다. 안드레카드는 일본 협력교회에서 러브소나타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카드이다. 여느 협력교회와 마찬가지로 켄트 목사와 성도들도 전도하고픈 가족

과 친구, 지인들의 이름을 안드레카드에 적고 간절히 기도했다.

올해 2월, 안드레카드에 적힌 미신자(코마츠 나루미 씨)가 교회에 찾아오더니 바로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켄트 목사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러브소나타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 성도는 어엿한 전도인이 됐다.

“안드레카드를 우리 교회에 맞게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안드레카드를 이용해서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에디호스 켄트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일본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품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순교비에 서린 선구자들의 눈물과 신앙

시즈오카는 일본 역사와 기독교 순교의 현장



왼쪽부터 스푸성공원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동상, 오타 줄리아가 기도한 석등, 아베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크리스천을 추모하는 순교비.

일본의 상징 후지산, 끝없이 펼쳐진 녹차밭, 일본 3대 국민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치비마루코짱’의 무대, 스시의 화룡점정(畫龍點睛)와 사비, 사시미(회)의 꽃 오토로(참치 배살)… 우리가 일본하면 떠올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시즈오카’의 작품들이다.

사실 우리에게 시즈오카는 생소하지만 일본에서는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시즈오카는 역사적, 신앙적으로도 그 의미가 깊다. 시즈오카는 100년 동안 이어져온 전국시대를 종결하고 에도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고난과 인내, 욕망이 숨겨져 있는 곳이다. 대장군 이에야스의 명을 따르지 않고 유배된 조선인 성녀 ‘오타 줄리아’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고장 ‘시즈오카’

시즈오카역 광장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상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어린 시절, 다른 하나는 40대 후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시즈오카 시내에는 총 세 개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동상이 있다. 두 개는 시즈오카역, 하나는 스푸성공원에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더불어 일본의 3대 명장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피비린내 나는 전국시대를 종결짓고 에도막부를 창설한 이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까지 약 260년 동안 일본의 평화와 문화 부흥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시즈오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75년 인생 중 43년을 시즈오카에서 지냈다. 어린 시절 스푸(시즈오카의 옛 지명)에서 인질생활을 했고, 마카타하라 전투에서 대패하고 16년 동안 몸을 피해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도요토미가 죽고 정권을 잡은 후에는 쇼군(장군)의 지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교토, 오사카, 에도(지금의 도쿄)의 중간 지점인 시즈오카에 자

리잡고 막강한 정치 영향력을 행사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죽어서도 시즈오카를 떠나지 않았다. 시즈오카에 있는 ‘구노산 도쇼구(東照宮)’라는 신사에 그의 유해가 있다.

스푸성공원은 시즈오카 변화가에 있는데 성터 유적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동상이 아니었다면 그냥 밋밋한 공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산하고 특징적인 것이 없다. 오히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년 동안 몸을 사리며 인고했던 하마마쓰성(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묻혔다는 구노산 도쇼구에는 평일인데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참배하러 오고 있었다. 참배객들은 하나같이 상자에 동전을 넣고, 박수를 세 번 치며 기도했다. 그들은 400년 전 죽은 이에게 도대체 무엇을 빌고 있을까?

“지상의 왕을 위해 하늘의 왕을 불편하게 할 수 없다”

“불타라 여름의 십자가 남쪽하늘 높이 밤의 어둠을 비추는 별은 눈물의 상들리에”

일본 국민 밴드 ‘서던올스타스’(Southern All Stars)의 ‘꿈으로 사라진 줄리아’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줄리아는 실존 인물이다. 주인공은 크리스천 다이묘(영주,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양녀 ‘오타 줄리아’다. 오타 줄리아는 조선인이다. 임진왜란 당시 세 살배기 아기가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뒤 고니시 유키나가의 양녀가 되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고니시는 조선인 양딸에게 줄리아라는 세례명을 주었다. 오타 줄리아는 양아버지 고니시처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성장했다.

시련은 갑자기 찾아왔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반대파인 고니시를 처형한 것. 고니시가 죽은 이후 오타 줄리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녀가 되어 스푸성에서 기거하게 됐다. 시녀가 된 오타 줄리아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눈을 피

해 크리스천 석등(외형은 봉양탑)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오타 줄리아는 총명하고 매우 아름다웠다고 한다. 오타 줄리아를 마음에 들어 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측실이 될 것과 종교를 버릴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오타 줄리아는 거부했다.

“지상의 왕을 위해 하늘의 왕을 불편하게 할 수 없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뜻을 거부한 오타 줄리아를 멀리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섬(고즈시마, 神津島)으로 유배를 보냈다. 오타 줄리아는 유배지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았다. 고니시 가(家)에서 배운 약학 지식을 살려 환자를 간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생을 마쳤다(이에야스 사후 유배에서 풀려나 일본 본토에서 생활했다는 설도 있다).

스푸성공원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호다인’이라는 작은 절이 있다. 그곳에 작은 석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타 줄리아가 기도하던 기리시탄(크리스천의 일본식 발음) 석등이다. 그 석등 앞에서 잠시 줄리아를 상상해 보았다. 어린 나이 전쟁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 적장의 딸이 되었다. 양부의 보살핌도 잠시, 가문이 몰락하고 원수의 시녀로 전락했다. 설상가상 배교와 측실이 되라는 압박까지 받았다. 작고 힘없는 외국인 소녀가 무슨 힘으로 그 험난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을까? 신앙이 아니고서는 결코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고 권력자에게 반기를 든 그녀의 용기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작고 초라한 순교비의 의미

시즈오카역에서 아베가와행 버스를 타고 약 10분쯤 가면 ‘아베강변’이 나온다. 이곳에서 기리시탄들이 처형을 당했다. 1612년 기리시탄 금교령을 발표한 도쿠가와 막부는 오타 줄

리아를 포함한 기리시탄 무사와 여종을 스푸에서 추방하고 교회를 파괴했다. 그들의 순교비에는 “1614년 마을 내 중요한 기리시탄 8명을 체포, 그 중 6명의 이마에 뜨거운 철 십자가 화인을 찍어 마을을 돌게 한 후 정념사(아베강 근처)에 도착했다. 양 손가락과 다리 힘줄이 잘린 그들은 방치된 채 숨을 거두었고, 스푸 기리시탄의 선구자가 되었다”고 적혀있다.

순교비는 초라해도 너무 초라했다. 노인 요양시설 주차장 한편에 덩그러니 서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일부러 그곳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들르지 않는 이상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작은 비석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이 초라한 순교비의 의미가 결코 작거나 불분명하지 않다. 전국시대의 혼란에 종점을 찍고 일본에 평화를 가져온 도쿠가와 막부의 빛나는 치세 아래에는 수많은 크리스천의 피와 눈물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놓고 간 예쁜 꽃다발을 보며 고통 속에 죽었을 기리시탄 선구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시즈오카는 그 이름 그대로 참으로 고요한 도시다. 자동차 경적 소리 한번 들리지 않았다. 시즈오카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는 후지산의 절경을 딱 한 번밖에 못 본 것이 몹시 아쉽다. 후지산의 설경은 감동 그 자체였다. 후지산 중턱이 안개와 구름으로 가려져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만년설 쌓인 후지산 정상은 장관이었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가 연상될 정도로 신비롭기까지 했다. 녹차는 또 얼마나 향긋하고 그윽한지 모른다. 시즈오카의 고요하고 신비로운 매력에 땀뻑 젖어둘 수밖에 없었다. 시즈오카는 일본 역사와 기독교 순교의 현장이다. 시즈오카에서 울려 퍼진 러브소나타가 뜻 깊은 이유다.

시즈오카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 스리야사 노 목사는 “시즈오카 러브소나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어서까지 영적으로 묶은 우상 숭배의 흐름을 깨뜨리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선생님은 ‘괜찮다’고 해주셨거든요”

30년 만에 만난 교회학교 선생님과 제자들의 대화

30년 만이다. 교회학교 선생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난 게 말이다. 그때 그 선생님은 임희창 장로(차세대 대표장로, 이하 임), 정학영 장로(수원 온누리교회, 이하 정), 이우진 집사(부천 온누리교회, 이하 이), 중등부 제자는 강윤호 목사(반포교회, 이하 강), 금보라 성도(양재 온누리교회, 이하 금), 김응수 성도(양재 온누리교회, 이하 김)이다. 선생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참으로 특별했다. 곁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잊고 있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와 감동까지 더해져 너무 좋았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임: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과 제자로 만난 게 1988년이지?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중등부를 담임하면서 처음 만났으니까.”

강: “맞아요. 그때 서빙고 온누리교회 건축이 다 안 되었을 때라 신동아쇼핑센터 지하에 있던 신동아건설 직원휴게소에서 중등부 예배를 드렸잖아요. 교회 건물이 다 지어지고 지하 1층에 있던 소극장(현재 2천만광장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소극장에서 매년 12월 24일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정말 끝내줬었죠. 그 행사 이름이 뭐였더라?”

금: “‘시와 찬미가 있는 밤(이하 시찬밤)’ 아니었나?”

강: “맞아, 시찬밤! 당시 동부이촌동에 있는 교회 4곳(충신교회, 한강교회, 강변교회, 온누리교회) 중등부가 ‘연합 문학의 밤’ 행사를 했던 것도 기억나고.”

금: “그때는 교회가 너무 좋고 즐거워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었잖아.”

김: “맞아. 그때는 교회에서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

강: “사실 그때 교회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긴 했었지.”

김: “우리 엄마도 교회활동 조금만 줄였어도 성적이 올랐을 거라고 잔소리 하셨던 게 기억나(웃음).”

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응수 어머니를 만났는데 응수가 고등학교 때 교회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시면서 그게 아니었다면 더 좋은 대학에 갔을 거라고 농담을 하시더라(웃음).”

강: “좋은 학교 가는 대신 사람이 안 됐을 수도 있죠(웃음).”

이: “사실 부모님들이 걱정할만 하셨지. 오죽했으면 교회만 가면 집에 올 생각을 않는다 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너희들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

김: “내가 부모가 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시험을 앞두고 교회에 며칠씩 보낼 수 있을까?’ 부모로서 약간 고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금: “그래도 자녀들이 교회 가겠다고 하면 보내야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긴 했어도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임: “맞아. 교회만큼 공동체성, 사회성, 리더십을 배우는 좋은 곳이 없거든. 한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기도 하거든.”



30년 전 중등부 제자들과 선생님들. 사진 왼쪽부터 정학영 장로, 이우진 집사, 임희창 장로, 제자 금보라 성도, 김응수 성도, 강윤호 목사.

있는 그대로 사랑을 주신 선생님

강: “선생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게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금: “저는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나요.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안 된다고 할 때 교회학교 선생님은 ‘괜찮아’라고 해주셨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위안이 됐어요.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괜찮다고 해주셨던 게 정말 감사했어요.”

정: “예전에 한 학생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걸 본 교회학교 선생님이 혼내는 대신 ‘괜찮아. 이때 아니면 언제 염색을 해보겠니?’ 라고 하더라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니까 그 학생이 정말로 변했어요.”

강: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늘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니까 고민이 생기면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김: “맞아요.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마냥 예뻐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믿음과 신앙에만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혼내고 잔소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 편히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금: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는 말하지 못한 고민들을 교회학교 선생님께는 털어놓았던 것 같아요. 늘 곁에 있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셨던 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정: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시겠지요? 사랑으로 품고,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어린 양들의 목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니까요.”

임: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랑과 소명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면 더욱 좋겠고요.”

이: “온누리교회에는 정말 멋지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 선생님들 덕분에 차세대가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처럼 다음세대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굳건히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에서 받은 편지

그때 우리가 부친 편지구나 너희는
성서가 모든 시대로 보낸 약속이듯
너희 속에 심은 언어가 이렇게
푸른 언어로 돌아왔구나

삼십여 년이 지났네
지금은 없어진 지하 1층 소극장이었지
전체 예배 후 분반 공부는
너희 마음에 쓴 편지
언어가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해
선생님들은 몸짓과 눈빛을 함께 담았지
작은 화분에 심은 해바라기 씨앗이
내일을 향해 힘껏 흙을 밀어 올리듯
떡잎 두 장을 쏘옥 내밀 듯
너희는 너희 잠재력을 밀어 올렸구나
마끈거리는 물미역 같은 사춘기를 보냈지
어디로 미끄러질지 모르는

이제 건미역이 되어
필요한 곳에서 스스로 물미역이 되어 주겠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두려움 없이 아름다워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받을 영광이 다르시지
줄을 세우고 번호를 매기는 세상과는 다르게
슬픈 사람을 보고 두 손을 모으던
윤호 눈빛은 먼 날 목사님이 될 눈빛이었구나
설명해 주길 좋아하는 재능이 속에는
선생님이 살았구나
목소리 속에 노래하는 이가 살던
지은이는 생각가
모두 기억한다 보고 싶다
제 뒤통을 하는 그때의 너만 한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었구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너희 마음에 빨간 색연필로
밀줄 긋지 못한 내용을 돌아보게 된다
추신을 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스럽게 보듯
너 자신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듯

너희 역시 미래에 받을 편지를 쓰고 있었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쁨, 슬픔만이 아닌 믿음의 모험으로 가득한
추억의 박물관 같은 편지를

/ 정영선 권사(서빙고공동체)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를 생활화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가정예배 양식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9장), 믿음으로(키즈벤처 12집)	다같이
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예레미야 5:12~13	다같이
설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말은 이
말씀과 일상 나누기		다같이
기도제목 나눔과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예수 따라가며(449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예루살렘).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보이지 않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딤후 4:6).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과워웨이브).

공기와 빛과 중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와 빛과 중력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듯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습니다(실제 가족에게 일어난 하나님 체험 사례 나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거짓말 하는 예언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며(우리말), 계시지 않는다(개역개정)’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별 볼일 없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부정하니 당연히 그들은 재앙(급작스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칼(전쟁)과 기근(굶주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렘 4:23~26 등)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 말로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심판과 멸망을 면할 수 없다”(렘 1:16; 2:8; 3:5 등). 예레미야는 끔찍한 말씀을 전해야 해서 고통스러웠지만(렘 4:19),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호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렘 3:22; 4:1~4 등).

괴로워도 진실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거짓말쟁이 예언자들을 가리켜 ‘바람’이라고 칭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시 1:4) 곧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날아가 버릴 헛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

된 신념에 빠진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헛된 신념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달콤한 거짓말로 속인 까닭은 13절에서 예레미야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데(시 19:9; 33:4)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니 사람을 속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12절). 그들은 곧 재앙과 칼과 기근을 당할 것입니다(13절, 렘 4:12).

여러분, 공기와 빛과 중력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값비싼 물건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공기와 빛과 중력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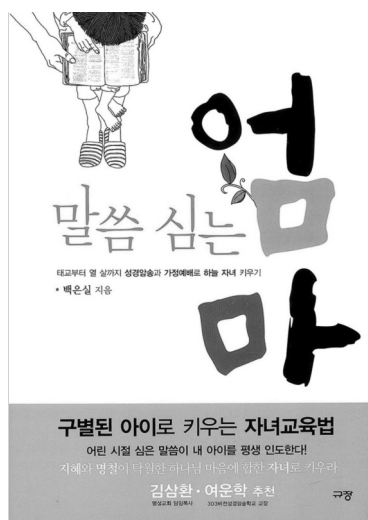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강현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

가정예배를 도와주는 책

말씀암송과 가정예배



〈말씀 심는 엄마〉
백은실 저 | 규장 |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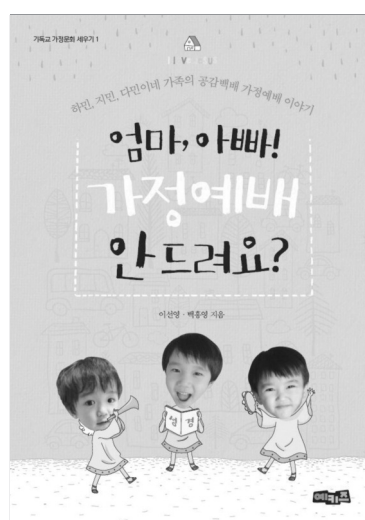
〈말씀 심는 엄마〉는 백은실 사모가 말씀암송과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노하우를 녹여낸 책이다. 백은실 사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백은실 사모는 자녀들이 세 살 정도 되면 가정예배를 인도했는데 첫째 조이는 다섯 살 무렵 말씀 160절을 암송했다.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닮아갔다.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고, 아픈 이웃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주기도 한다.

백은실 사모는 ‘암송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유한 성품이 된다’면서 말씀암송을 추천한다. 말씀암송은 태어 때부터 할 수 있다. 이를 태교암송이라고 하는데 임신 중인 엄마와 뱃속 아기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꾸준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태어는 엄마가 암송한 말씀을 양분삼아 자란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침기도와 자장가 등을 이용해서 꾸준히 성경암송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말

을 시작할 즈음에는 스스로 말씀암송을 할 수 있다.

성경적 자녀양육에서 말씀암송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예배다. 백은실 사모 가정은 주 6일 가정예배를 드린다. 평일 가정예배에서는 말씀암송을 추가하기도 한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의 신앙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데도 크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엄마, 아빠 가정예배 안 드려요?〉
이신영, 백흥영 저 | 예키즈 | 13,000원

백흥영 목사가 말쑥꾸러기 세 아들 하민, 지민, 다민이와 함께 써내려간 가정예배 지침서 〈엄마, 아빠 가정예배 안 드려요?〉를 발간했다.

누구나 최고의 부모가 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장이 바로 가정예배다.

백흥영 목사는 “아무리 먹고살기 바빠도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자녀들을 일일이 챙겨가며 예배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녀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토라져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지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 책의 부록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예배 팁을 제공하고 있다. 미취학 아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 말씀 켈린더로 드리는 예배, 잠자기 전 드리는 예배 등 총 8가지 예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예배 담당 세우기, 예배 규칙 정하기, 가정예배 표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예배 규칙도 소개한다. 미취학 혹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엄마, 아빠 가정예배 안 드려요?〉를 꼭 읽어 볼 것을 추천한다. 자녀들의 성장을 돕는 실제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더 멋진 세상’

지역에 복음을, 다음세대에게 꿈을, 난민에게 희망을

지구촌 이웃들의 가장 좋은 친구 NGO 더멋진세상은 나누고, 복음 전하고, 상처 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태어났다. 지난 8년 동안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보여준 활약상이 그것을 증명한다. NGO 더멋진세상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나누면 어김없이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졌다.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으로 정리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총체적 선교를 아시나요?

총체적 선교는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한 마디로 아우르는 말이다. NGO 더멋진세상을 만난 지구촌 이웃들은 어김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복음을 들었다. 예수, 교회, 기독교에는 관심조차 없던 마을이 전도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마을이 살아나면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그 원동력은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NGO 더멋진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총체적 선교다.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변화된다!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은 NGO 더멋진세상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제3세계 마을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배고프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다. 마을이 살아나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마을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주변에까지 선한 영향력이 전파된다. 네팔의 고레다라 마을,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가 마을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네팔 고레다라 마을은 2015년 대지진 당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마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유일한 기관이 NGO 더멋진세상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1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무너진 집 71채와 학교를 다시 세우고, 수도시설과 마을도로를 신설했다. 그 덕분에



더멋진세상의 대표적인 사업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에 전체 주민 380명 중 대부분이 힌두교 신자였고 기독교 신자가 15명에 불과했던 고레다라 마을이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이 됐다.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벽예배도 드리고 있다.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가 마을도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완전히 변화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미취학아동 교육, 의료시설 등도 완전히 탈바꿈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교회 공동체가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이웃마을 가훈도 마을에까지 흘러갔다. 응호망가 마을 교회가 가훈도 마을에 천막 교회를 개척했다. 그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NGO 더멋진세상에 배운 선진 기술을 아낌없이 나눠줬다. 매주 주일이면 아이들과 어른 200여 명이 가훈도 마을 천막 교회에 모이고 있다.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은 선교사들조차 접근하지 못했던 지역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몽골의 브리야트족, 스리랑카의 베다족, 인도네시아의 람퐁족은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 종족이다. 20여 년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좀처럼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NGO 더멋진세상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기숙사와 학교 등을 지어주고,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다.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바 마을은 강성 무슬림 지역이었는데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NGO 더멋진세상 뿐 아니라 타 기독교 단체의 사역과 전도를 더 이상 막지 않는다.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 탄생부터 교육까지 책임진다!

두말 할 나위 없이 다음세대는 교회와 국가의 미래다.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 소중한 다음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다. 제3세계 산모들은 양질의 영양 섭취는 고사하고 정기적인 검진조차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장애아 출산 비율이 10%가 넘는 지역도 있다.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도 질병을 이기지 못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20% 정도가 사망한다. 또한 친구들과 뛰어 놀고 열심히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날마다 물통을 들고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가서 물을 길러오고 있다.

다음세대의 출생부터 교육을 통한 성장과 변화는 NGO 더멋진세상의 또 다른 핵심 사역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니비사우, 네팔, 세네갈 등지에서 조산소, 모자보건소, 말라리아 퇴치, HIV감염 아동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세네갈의 알리마투 씨는 NGO 더멋진세상이 지어준 보건소에서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 필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고 위생용품과 출산용품도 지원받았다. 그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 소원 역시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니비사우 끼냐멜 고아원에는 8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고아들이 끼냐멜 고아원에서 가족을 만났다.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 비행기 조종사, 간호사, 고아원 원장 등 다양한 꿈도 꾸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건립한 르완다 영유아 아동발달교육센터에서는 취학 전 아동들이 기독교 가치관 교육을 받고 있다. 스리랑카 베다족 청소년비전센터, 미얀마 그두족 청소년 기숙사, 필리핀 아팰타바 마을 기숙사에서 다음세대들이 신앙으로 양육되고 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마을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고 있다.

긴급구호와 난민지원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는다

NGO 더멋진세상은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촌 이웃들을 위로하는 긴급구호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난민 지원도 하고 있다.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우간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수단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주로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레바논과 요르단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 130여 명과 학부모 30명이 동참하고 있다. 복음도 흘려보내고 있다.

우간다 북부 부드리 남수단 난민촌에는 초등학교를 건축했다. 2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건물이 없어 나무 그늘 아래에서 공부했었는데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근사한 학교가 생겼다. 너무 가난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급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학비는 무료다. NGO 더멋진세상은 부드리 난민촌에 우물도 파냈다.

NGO 더멋진세상은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정착촌 건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UN 산하 기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는 베카 계곡 리서치를 계속하고 있다. 베카 계곡은 레바논 북동부 지



다음세대를 위한
어린이/산모 취약 계층 생명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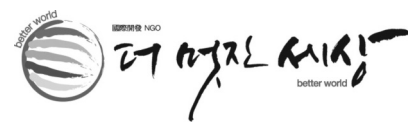


지구촌 이웃들을 위로하는
긴급 구호 및 난민지원사업



역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 난민 70만 명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베카 계곡에서 생활하

고 있는 미전도종족을 위한 사역은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더멋진세상 연혁



- | | |
|-------|--|
| 2010년 | 12월 22일: 창립총회
12월 29일: 법인허가(외교통상부) |
| 2011년 | 3월: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 긴급구호, 지원 |
| 2012년 | 4월: 세네갈 본나바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
9월: 제1회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정경화 자선 콘서트 |
| 2013년 | 1월: 르완다 르와마가나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
12월: 필리핀 지진, 태풍 피해 긴급구호(보훈, 일로일로) |
| 2014년 | 3월: 시리아난민구호 사업(레바논 거주)
6월: KCOC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지역 조기복구사업 시작(비농안안 섬)
9월: 힐링포아프리카(어린이생명살리기 자선 공연) |
| 2015년 | 5월: 네팔 지진 긴급구호팀 파견
8월: 홍콩지부 설립
11월: 네팔 3개 교회 완공식 |
| 2016년 | 6월: 필리핀 비농안안 섬마을 이양
11월: 파키스탄 오페수 처리시설 공사 완공 (2015년 ~ 2016년 11월)
12월: 아이티 태풍 조기복구를 위한 지원
우간다의 남수단 난민 지원 사업(천막학교) |
| 2017년 | 2월: 네팔 지진 피해 마을(고레다라) 학교, 교회, 주택 69채 건축 완료 및 감사 예배
4월: UN ECOSOC 특별협의지위 획득
12월: 세네갈 케르발라 중학교 준공
한동대학교 지진 피해지역 긴급 지원(1억) |
| 2018년 | 2월: 미얀마 보건소 준공
4월: 파키스탄 Mother & Child Health Center 준공
7월: 라오스 홍수피해 지역 긴급구호
8월: 우간다 부드리 초등학교 준공 |
| 2019년 | 4월: KAIST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 MOU 체결 |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정신과 전문의 서용진 집사가 정신질환자 관리제도 및 법률의 한계를 알아보고,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서용진 집사
(정신과 전문의,
수원 온누리교회)

문제는 ‘그들’이 아니다

조현병은 새롭게 등장한 병이 아니다. 근원은 알 수 없지만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천 년 전에도 존재했다. 조현병 증상이 심해져 망상이나 환각에 사로잡히면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밝혀진 것이 아니다. 몇 십 년 전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고대 문헌에도 기술되어 있다. 근래 일어난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 조현병을 포함한 중증의 정신질환과 그 위험성에 대해 정부나 언론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당황스럽고 더 크게는 우려스럽다. 문제는 환자가 아니다. 병도 아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던 것이다. 문제는 이분들을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신질환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사회가 케어할 것인지의 늘 논란의 주제가 되어왔다. 정신질환자 역시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인권적인 관점, 병이 있는 환자로서 치료의 대상이며 정신적 결함이 있으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관점,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성을 갖고 있고 자기보호능력이 손상된 사람들이기에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순화된 표현이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부당하게 병원에 감금되어 이혼당하고 자녀를 빼앗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인권적 관점이 득세하고, 진주방화사건 같은 큰 사건이 터지면 의학적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이 득세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턱없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와 케어 시스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케어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이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입원(비자의입원) 절차가 엄격해졌다. 이전까지는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입원 후 입원적합성 심사제도도 생겨났다. 입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더욱 엄격해져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고자 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의학적으로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인신구속’의 하나로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정법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 또한 생겨났다. 이번 진주방화 사건이 그런 경우였다. 실질적 보호자인 형은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었고, 유일한 직계가족인 어머니는 수술로 입원 중이었다. 여러 병원에 문의를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불행한 사고로 이어졌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조금 더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법은 도덕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 다양한 경우에도 빈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꼼꼼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 되기 십상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외래치료명령제’가 그 일례이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퇴원 후 반드시 외래치료를 받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법령 같아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외래치료명령의 신청,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 조치, 비용문제 등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렇다 보니 법에는 있지만 적용한 사례는 손에 꼽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는 강제입원 결정에 필요한 ‘자타해 위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또한 매우 난감한 일이다. 자타해 위험이란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과연 어디까지를 ‘위험하다’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은 있지만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환자와 가족의 삶이 달린 문제를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크나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가족은 의견을 내고 판단은 사법부에서 내리는 ‘사법입원제도’가 고

려되고 있지만 제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2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법과 더불어 정신질환자들을 케어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지역사회 서비스 역시 너무나 미비하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기관으로 각 기초지자체 단위에 세워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민간기관인 사회복귀시설이 있는데 두 기관 모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370명이었는데 센터직원인 10명, 그 가운데 정신질환자 케어를 전담하는 직원은 고작 4명뿐이었다. 한 사람이 100명 가까운 정신질환자를 케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당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더 정확하게는 별 문제가 없다면 현상을 유지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인력충원을 해주지 않는다. 정신질환자를 케어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보건 선진국이라 불리는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구에 따라 몇 개소가 필요하며 필요 인력은 몇 명인지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정신건강정책 및 지침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대부분이 계약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평균 근속연수가 매우 짧다는 점 또한 문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운영체제상 그것이 쉽지 않다 보니 근속연수 2년이 되기 전에 이직을 권고 받거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핏수를 당하기도 한다. 결국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직원들은 자주 이직을 하거나 아예 정신보건 분야를 떠나게 되고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법이 허술하고 사회적 관리체계가 빈약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고 궁극에는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큼의 여유도 없어 보인다. 전 국민의 20%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접하면서도 나는 나머지 80%에 포함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특히 크리스천들의 선입견은 일반인보

다 심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고 믿을 없는 행위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을 본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줄까?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다. 그들은 병으로 고통 받고 소외와 배제와 차별로 인해 상처받는다. 물론 과거에 비해 법이나 사회서비스 모두 나아지고 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들에 대한 시선이 따라붙을 뿐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거센 압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 언론으로부터 알게 된 자극적인 뉴스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그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견과 오해가 무너져야 한다. 사회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와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나의 병, 우리 가족의 병을 잘 인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환자 스스로 건강을 잘 케어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사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크리스천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답이 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문둥병은 죄와 저주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세리와 창기도 가까이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 들어낸 사회적 통념과 편견, 낙인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갔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두려움과 회피일 뿐이었다. 그 두려움과 회피를 극복한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오늘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어쩌면 질병 자체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울지도 모른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줄까? 소외되고 거절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은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다.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서빙고 02-3215-3532
양재 02-570-7443

특별기고

완벽한 결혼은 없다 건강한 결혼만 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하여

최승구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창 2:18).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좋지 않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짝을 만드셨다. ‘좋지 않음’을 ‘ 좋음’으로 만들기 위해 결혼제도를 만드

셨다. 그런데 역사와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흘러간다. 1970년대 미국 인류사회학자 마가렛 미드는 “50년 내에 가족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극단적인 의견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혼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한다. 지난 100년 동안 이혼율이 7배 늘었으며, 미국 어느 지역의 이혼율은 무려 50%나 된다. 이혼뿐만 아니라 만혼(晩婚)과 1인 가구율도 이미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혼문제는 당사자의 후유증 뿐 아니라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정체성 혼란, 애정 결핍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애당초 왜 결혼했을까?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는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답이 압도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끌림을 느끼면서 만나고, 만남이 반복되면서 결혼해서 같이 살기로 합의한다. 그런데 결혼식장의 어느 주례도 서로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결혼은 서약(誓約)이다

결혼식에서 우리는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사랑하겠다”고 서약한다. 서약(誓約)이란 맹세가 있는 약속이란 뜻이다. 서약의 원형은 아브람과 하나님의 언약식 즉,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창세기 15장 17절의 모습이다.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창 15:17).

취소할 수도 있는 점심약속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결혼은 내일 변할 상황에 상관없이 사랑하겠다고 엄숙하게 계약 맺는 일이다. 여기서는 너무 무거운 느낌의 서약이라는 단어 대신 약속으로 대신하겠다. 누구와의 약속인가? 두 가지다.

첫째,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배우자로 불러주셨을

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이브를 데려왔을 때, 아담은 감격하며 순종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 아담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일부였다. 만남은 신적 개입사건이다. 과거 동양 문화권에서도 만남과 결혼을 거의 신적 인연으로 보았다. 지금도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의 정혼(어릴 때 결혼상대를 정해놓는 제도)에는 이혼이 없다는 사실은 문명사회가 생각해볼 일이다. ‘결혼이 절대주권자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신념은 사실상 결혼관계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갈등을 해결해 준다. 부부 갈등에서도 배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먼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마 6:33)는 말씀은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부부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만일

결혼이라는 계약 성립 이후에는 배우자와 상관없이 혼자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계약위반이나 마찬가지이다. 결혼계약 관계에서 대화하며 한 몸으로서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 결혼 이후에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이익’이 ‘부부 공동의 이익’으로 바뀐다. 마치 신앙인으로 거듭나면 내가 추구했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모든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되는 것과 같다. 결혼하면 묶인다고 생각해서 결혼 자체를 피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다. 결혼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결혼은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장(場)이다. 결혼을 통해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롬 3:19). 본질상 진노의



“살아보니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하나님이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배우자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결혼생활이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 부부갈등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일이다. 하나님께 반복해서 묻다 보면 묻는 사람이 깨닫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 배우자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묻는 사람은 어느덧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배우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 영향 받는 사람에서 영향 주는 사람으로 변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자각증상 없는 교만과 뿌리 깊은 탐욕이 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하는 것만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필요한 것이 고통스러운 수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술은 사랑이고 축복이며 감사할 일이다.

둘째, 결혼 당사자 간의 약속이며 계약이다. 계약이란 상호적이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다. 일단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녀이다(엡 2:3). 그러나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 변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예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예 이토록 돌봐주십니까”(시 8:4)라는 말씀은 사람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을 보여준다. 여기서 ‘사람’은 ‘에노쉬’ 즉, 연약한 인간, 죄짓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배우자를 이 시각으로 보면 형편없다. 가정불화와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 번째로 언급되는 ‘인자’는 ‘벤 아담(아담의 자손, 사람의 아들)’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타락 전의 인간이다. 인간의 타락 이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생명을 주는 마지막 아담’(고전 15:45)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다. 연약하여 실수하는 인간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모두가 연약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결혼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기쁨과 신선한 소망을 준다.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에 이런 말이 있다.

“아내가 없는 사람은 선행도, 도움도, 기쁨도, 축복도, 용서받음도, 웰빙도 없다.”

같이 살면 혼자 살 때보다 불편하다? 맞다. 그러나 그 불편을 상쇄하고도 넘칠만한 기쁨과 안정감, 평안과 소망, 위로가 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창세기에 남자 창조는 한 절이고, 여자 창조는 여섯 절이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도움이란 힘이 더 센 쪽에서 베푸는 것이다. 남자는 지어졌고(히브리어 -yatzsar, 영어-form), 여자는 만들어졌다(히브리어 -babag, 영어-build). 하나님은 결혼 생활에서 다름을 경험하고 알아가며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하셨다.

만남은 허물 많은 인간, 에노쉬들의 만남이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다른 점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소중하다. 부부뿐 아니라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조화롭게 된다. 부부는 이해와 용납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 친밀감은 육체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까지 포함한다. 거기서 진정한 통합인 한 몸 됨이 이뤄진다.

결혼 전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점들이 결혼 후에 드러난다. 한때 둘이 나누었던 낭만과 에로스보다 바쁜 일과가 우선된다. 좋아했던 감정은 영원할 것 같지만 변한다. 이기심이 부딪힌다.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에로스’는 주어진 기쁨, 내 만족)가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이다. 그 사랑을 주고 받도록 부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가페는 주어진 목적이(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가 중요하다. 나를 죽이고 배우자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아가페는 에로스와는 반대로 아주 긴 시간을 지배한다. 감정이 아닌 관계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참고...”는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아가페는 용서를 주고받는 관계의 세계이다. 가정은 피차의 부족함을 서로 보듬어 안고, 함께 지어 저가는(엡 2:2) 공동체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어져간다. 이 작은 공동체가 교회, 사회, 국가, 민족 등 세계 모든 공동체의 기초이다. 부부 문제가 심각한 가정도 아가페 사랑의 영을 받으면 달라진다. 관계의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랑의 영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성령은 가정의 어둠을 물리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해와 감사, 용서와 사랑의 영으로 지어져간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에 기쁨과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건강한 공동체이다. 완벽한 결혼은 없다. 건강한 결혼만 있다.



온누리요양센터 개원 13주년을 축하하며 케이크 촛불을 끄고있다.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누리요양센터 개원 13주년 축하예배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온누리요양센터가 지난 5월 8일(수) 개원 13주년 축하예배를 드렸다. 이날 축하예배는 조항진 장로의 대표기도, 찬양팀의 특순, 김정진 원장의 인사말, 황종연 목사(Acts29 비전빌리지)의 메시지,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정호욱 목사의 메시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호욱 목사는 “온누리요양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지역사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온누리요양센터는 2006년 5월 개원했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0차 세례식

지난달 19일(금)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20차 세례식이 열렸다. 이기훈 목사가 집례(執禮)한 세례식에서 어르신 및 보호자 4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날 세례를 받은 성도뿐만 아니라 세례식을 지켜보던 성도들도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한 관계자

는 “매주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주는 온누리교회 연계봉사단과 지역교회 예배봉사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CF, OCC공동체 주최 특강

미션디모데, FCBH 사역 소개

CCF(크리스천 CEO 포럼)와 OCC공동체가 지난 11일(토)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프랑스 ‘미션디모데’와 ‘Faith Comes By Hearing’(이하 FCBH) 사역을 소개하는 특강을 개최했다. 미션디모데 대표 다니엘 목사, 부대표 제레미 목사, FCBH 물간 책스 부총재가 미션디모데 교회의 철학과 직업관, FCBH의 오디오 성경사역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다니엘 목사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살아야 하

는지를 가르쳐줄 것”이라고 강조했고, 물간 책스 부총재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디오 바이블을 들려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FCBH 사역을 위해 기업인들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션디모데는 1972년 설립된 프랑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도행전적 공동체 교회다. 30개 지교회와 센터, 신학교, 선교사 배출 등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영성을 전파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강동, 행복한 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5월 25일~6월 15일 오후 1시 30분 사랑홀

강동 온누리교회가 ‘2019 행복한 부부학교’를 개강한다. ‘다시 떠나는 신혼여행’을 주제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홀(나비쇼핑몰 10층)에서 열린다. 3주차에는 오륜비전빌리지(경기도 가평)로 1박2일 캠프를 간다.

행복한 부부학교에서는 하나님의 가정원리, 부부 역할, 자기에로의 여행, MBTI성격분석, 부부의 성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49세 이하인 성도가 대상이다. 신청은 12가정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강동 온누리교회 목회지원실이나 홈페이지(<https://marriagebuilders.kr>)에서 하면 된다. 24개월 이상 자녀 탁아도 가능하다. 회비는 25만원이다.

문의: 010-3406-4066,
010-8670-6044

/ 정현주 기자

재정국 팀장 간사 모집

안수집사 이상, 관련 업무 유경험자

온누리교회 재정국 팀장 간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온누리교회 안수집사로, 신실하고 십일조 생활을 하고 있으며, 회계업무에 능통하고 금융기관 혹은 기업 재무관리 유경험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양간증문 포함)이다. 접수는 이메일(changk58@onnuri.org)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647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5437	이지현	양지 서누리	1135514	이준형	서초B	1135540	정민영	여호수아	1135618	류시진	하늘
1135438	유하운	인천 소망	1135515	이경광	수원 동누리	1135541	이보람	여호수아	1135619	황보우진	하늘
1135439	서혜정	인천 소망	1135516	이하림선영	웅산	1135542	임정은	여호수아	1135620	노수미	하늘
1135440	최용석	무궁공동체	1135517	최오영	성동광진	1135579	김홍중	서초A	1135621	고예진	하늘
1135441	조철호	마포	1135518	김순분	평택	1135580	이희윤	하늘	1135622	이인혁	하늘
1135442	이호신	강촌	1135519	양은희	평택	1135581	김지원	하늘	1135623	김준	하늘
1135443	유태현	하늘	1135520	박진영	여의도	1135582	이한솔	하늘	1135624	김성중	하늘
1135444	유진선	하늘	1135521	임경아	대전 남누리	1135583	강수진	하늘	1135625	손성훈	S브릿지
1135445	이혜영	하늘	1135522	박진희	하늘	1135584	이다윗	하늘	1135626	권혜경	마포
1135472	황지애	양재	1135525	정수연	하늘	1135585	임성연	하늘	1135627	기창근	남양주B
1135473	손경미	강남A	1135526	박재연	하늘	1135587	윤길자	송파A	1135628	안진아	중종로
1135493	백인규	인천 소망	1135527	이한동	하늘	1135588	박연숙	강서	1135629	최경선	아수
1135494	김혜영	웅산	1135528	윤병준	동작	1135589	김종삼	웅산	1135630	정경희	성북
1135496	임한나	여호수아	1135529	박상희	하늘	1135590	정영신	수원 남누리	1135631	박하빈	성북
1135497	정나리	여호수아	1135530	조성래	양재	1135591	이선영	요셉	1135632	조혜완	SNS
1135498	신민근	여호수아	1135531	길학배	인천 소망	1135592	명재희	요셉	1135633	김지훈	성북
1135499	김유진	여호수아	1135532	현지환	인천Web	1135593	김서정	여의도	1135634	신미진	강남A
1135500	최준호	여호수아	1135533	손예원	인천Web	1135594	박용구	동작	1135635	채수형	경기A
1135501	박향희	여호수아	1135534	김성은	여호수아	1135595	정선희	동작	1135636	지용희	양재
1135502	정진형	영등포구로	1135535	이은옥	여호수아	1135613	정희록	서초D	1135638	김양희	Point5
1135504	김유진	양재	1135536	박창우	여호수아	1135614	김서정	S브릿지	1135639	이수화	강촌
1135509	백예나	Gil	1135537	이영은	여호수아	1135615	백인영	양재			
1135512	박선영	서초D	1135538	김가영	여호수아	1135616	최지은	수원 동누리			
1135513	성예진	Point5	1135539	이현구	여호수아	1135617	윤영찬	이촌			

통일세미나 6월 1일 오후 2시 양재 화평홀

통일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한국 교회의 과제’를 주제로 통일세미나를 연다.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

일웅 전 총장(총신대) ‘서독의 잘츠기터 인권 기록소의 역할’, 임종현 박사 ‘국제인권단체 공조의 방안’, 주도홍 전 부총장(백석대) ‘북한인권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CGNTV ‘미디어 워크숍’ 개최

CGNTV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한강중학교 방송반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상 촬영 실습, CGNTV 스튜디오 견학, PD와

의 만남, 음향 콘솔 조작 실습, 라디오 진행 실습 등을 했다.

CGNTV는 2017년부터 미디어 워크숍, 벽화 나눔, 서빙고동 사진전 등을 열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네헤미야의 기도

그런데 네헤미야가 죄를 고백할 때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과 동족이 처한 위기는 네헤미야가 아니라 조상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네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죄”라고 하고,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자기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지도자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향한 회개의 출발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아닙니다. 비난의 화살이 회개를 앞당기지 못합니다.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시대, 민족, 언어, 문화를 뛰어넘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 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 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라”(8~10절).

네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관료로 자라기까지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물줄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방 땅에서 자라나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 될 때까지 그는 이방문화 교육을 받고, 이방문화 속에서 자랐을 텐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헤미야가 예언한 서책의 필사본이 돌아다녔고, 그것을 다니엘이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을 위해 기도한 것이 다니엘 9장입니다. 네헤미야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율법 내용들이 필사된 서책들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시대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사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헤미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헤미야는 정확하게 현실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과 죄로 심판에 처해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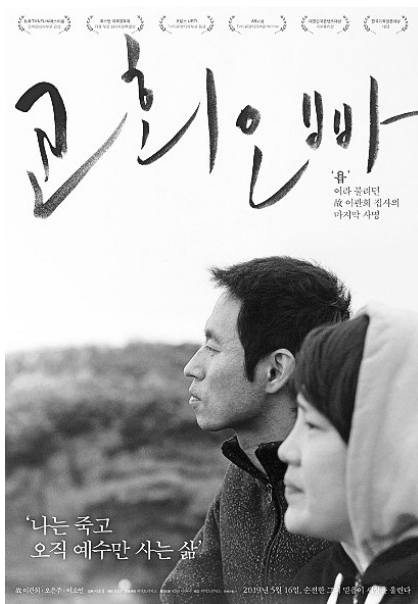
네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점점 더 자원하고, 적극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종’이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요, 말씀대로 행하려는 자입니다. 네헤미야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간구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합니다. 기도가 행동이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네헤미야는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자신의 신분이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더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네헤미야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백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이 기도를 한 것은 자신을 회복의 역사에 사용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 놀랄 정도로 자신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움직이시고, 역사의 반대편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라는 네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표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헤미야가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우리가 꼭 봐야 할 영화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감사’



숨을 고를 수조차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했던故 이관희 집사를 스크린에서 다시 만났다. 이관희 집사의 삶을 다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가슴이 아프고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드는 것조차 미안했다. 영화 ‘교회오빠’는 감사를 잃어버리

고 사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

이관희 집사는 뛰어난 인재였다. 명문대학을 4년 전액장학생으로 졸업했고, 다국적 기업 연구원으로 일했다. 자타공인 ‘교회오빠’라 불릴 만큼 신앙도 좋았다. 그에게 허락된 축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결혼과 출산 등 행복한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시련이 계속 찾아왔다.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아들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고통 속에서 이관희 집사는 이렇게 고백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난은 또 이어졌다. 이번에는 아내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웬만한 사람이라면 충격을 넘어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관희 집사 부부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부부의 항암치료가 끝나고 딸의 돌잔치를 하면서 이제 정말 행복한 시간만 남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관희 집사의 암이 재발했다.

그 순간 이관희 집사는 이렇게 기도했다.

“내 안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관희 집사는 육신의 회복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소망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신앙을 놓치지 않으려 죽을힘을 다했다. 중환자실 천장에 붙어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이관희 집사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암이 두 번째 재발했다. 항암치료도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이관희 집사는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제주도에서 투병을 마쳤다. 그곳에서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 매일 피를 토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려 애썼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이관희 집사가 딸 소연이의 생일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소연이의 세 번째 생일에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아바라서 조금 더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금후를 베풀어주옵소서. 소연이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신앙 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연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이관희 집사는 마지막까지 말씀을 놓지 않았다.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도 마약성 진통제를 거부했다.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극심한 통증이 주는 고통보다 말씀을 읽지 못하는 고통이 그에게는 더 아팠기 때문이다.

이관희 집사의 아내 오은주 집사가 남편의 죽음 앞에서 고백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 없는 천국으로 거두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관희 집사는 마흔 번째 생일날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나님 품에 안겼다.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노래했던 이관희 집사의 삶을 영화 ‘교회오빠’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교회오빠 상영관을 검색하면 가까운 영화관을 찾을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덜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로 섬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덜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30 301호/네덜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로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23기

일시: 6월 8일~30일(4주간, 토/일 1박 2일)

장소: 양지 비전빌리지

신청: iSchool 홈페이지

회비: 가정당 30만원(자녀 5만원)

문의: 윤석남 팀장(010-4427-5025)

서빙고 창조과학탐사

일정: 6월 22일~23일(1박2일)

장소: 전라남도 증도 문종경 전도사 유적

지, 해남 공룡 발자국 화석지, 진도 울돌목

문의: 010-7636-6305

온누리임양가족(제이홀) 임양세미나

주제: 그리스도인의 입양이란?

일시: 5월 19일 오후 5시~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2층 꿈아이홀

대상: 입양을 준비 또는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오창화 팀장(010-2049-8210)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모집

모집: 서빙고 한식조리, 양재 커피숍

자격: 세례교인, 경력부관(동종업계 경력

자,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접수: bible81@onnuri.org

문의: 총무팀(02-3215-3102)

*상세 내용은 '사람인' 해당 공고 참조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Cra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향: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중증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더멋진세상 사업 현황

아프리카(7개국) 세네갈, 모리타니, 기니비사우, 부르키나파소, 르완다, 우간다, 말라위
아시아(9개국) 몽골,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레바논, 요르단, 네덜, 키르기스스탄
동유럽(2개국) 몰도바, 우크라이나
중남미(3개국) 멕시코, 온두라스, 니카라과

총체적 마을 개발사업 Making a Better Village

11개국 13개 마을 세네갈 본니바 마을,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 네덜 고레다라 마을 등

어린이 / 산모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 Children Rescue Program

아프리카 지역 말라리아, 기생충 퇴치 사업

네덜 & 미얀마 에이즈 보건 어린이 영양 개선 사업 & 학생 장학 지원 사업
해외 환우 초청 치료

교회 건축

르완다(2개), 네덜(4개), 기니비사우(1개), 우간다(1개), 스리랑카(1개), 부르키나파소(1개)

성도님들의
소중한 나눔이
영방에 희망을
꽃피웁니다.



Mission, Not Success But Service